

崔南善の主宰による時事週報 『東明』

최남선이 주재한 시사주보 『동명』

『東明』は 1922 年 9 月 3 日京城（ソウル）で創刊された一冊 20 頁の時事週報である。この雑誌は印刷部数 2 万ほどで比較的人気があったが、違ったやり方で「新朝鮮の誕生」を模索しようということになり、1923 年 6 月 3 日の通巻第 40 号（第 2 巻第 23 号）で終刊となった。

朝鮮總督府の強圧的な植民地政策は朝鮮人の 3・1 独立運動以後 1920 年代の文化政治に変わり、『東亞日報』、『朝鮮日報』、『開闢』、『別乾坤』などのような韓国語新聞と雑誌が多く発行されるようになった。当時朝鮮の言論で一番左翼的だとして検閲の弾圧を受けていた『開闢』が 1926 年に廃刊となったのとは違って、『東明』は事前検閲を通さないまま発行され、比較的に自由な意志表現が可能であった。

崔南善の主宰による『東明』の創刊意図は朝鮮学の樹立であった。『東明』では社会主義思想が紹介されるものの、民族主義的な立場からの批判的な見地が見られる。

『동명』은 1922년 9월3일 경성(서울)에서 창간된 총 20면의 시사주보(時事週報)이다. 2만부가 소화될 정도로 비교적 인기 있는 잡지였으나 1923년 6월3일 통권 40호(제2권 23호)로 다른 방법으로 "신(新)조선탄생"을 모색하고자 중단되었다.

조선총독부의 강압적인 식민지 정책이 조선인의 3.1. 독립운동 이후 1920년대 문화정치로 바뀌어『동아일보』,『조선일보』,『개벽(開闢)』,『별건곤(別乾坤)』 등 한글신문과 잡지가 많이 발행

되었다. 당시 조선언론 중에서 가장 좌익으로 여겨져 검열의 수모를 겪었던『개벽』이 1926년 폐간되었던 것과 달리,『동명』은 사전검열을 거치지 않고 발행되어 비교적 자유의사표현이 가능했다.

최남선이 주재한 『동명』의 창간의도는 조선학(朝鮮學)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동명』에서는 사회주의 사상을 소개하지만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비판적 견지를 보인다.